

커뮤니티 댄스에서 참여 무용의 복잡성 연구*

한 헤 리**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참여 무용의 복잡성 |
| II. 커뮤니티 댄스의 시대적 개념 | 1. 참여 체계 |
| 1. 직접 경험으로서의 무용 | 2. 참여 무용의 잠재적 기능 |
| 2. 아마추어의 의미 | IV. 결론 |
| | 참고문헌 |

Abstract

A study on the complexity of the participatory dance in the community dance

Han, Hea-ree · Kyungsoong University

With the goal-directed behavior viewed as the task of the times, the contents of the study on the complexity of the participatory dance in 'the community dance,' which aims to explore and present the position and the meaning of dance in the form of life of the individuals, are as follows.

The community dance means the dance that exists in the contemporary life that shares the problems of humankind, and that exists in the different forms and appearances with different reasons and purposes according to regions.

The network knowledge of the 'age of net' always provides diverse opportunities and models, and the opportunities and models are as diverse as the imaginations (applications) of the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soo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14).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2014. 01. 20. 심사일: 2014. 02. 10. 게재확정일: 2014. 03. 01.

individuals, so it is possible for anyone to take an inner mental experience through the dance. This is the accessibility of the community dance.

The complexity in the participatory dance refers to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advantages of the participation system, the degree of the development of potential functions of the dance and the systematic advantages.

The dance develops sensory skills and symbol skills. And the direct experiences in such inner goals are not for the sake of self-satisfaction but for the sake of self-perfecting to contribute more progressively to the common benefits of humankind.

The amateur dance focuses more on experiences than on achievements, and places more emphasis on subjective rewards, which can be obtained in the process of the dance, than on the achievement levels of the individuals.

The participatory dance in the community dance is the dance of direct experiences aiming at inner experiences.

In the participatory dance, the sensory skill is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independent being different from me, and the symbol skill is the imagination to become something else other than me.

The expression techniques of the participatory dance are the high quality inner experiences that enable one to reach consideration beyond the tolerance that recognizes diversity and difference.

key words: community dance, participatory dance, complexity, sensory skill, symbol skill, consideration, creativity

주요어: 커뮤니티 댄스, 참여 무용, 복합성, 감각 기술, 상징 기술, 배려심, 창의성

I . 서론

본 연구는 ‘데이터 과부하’의 시대에서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의 시대로 진입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지식 지각 변동기의 무용이 탐구의 대상이다. 이러한 시대는 ‘정보 불안-information anxiety’, ‘정보성 피로 증후군-information fatigue syndrome’과 분석 불능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인터넷 시대-age of net’이기도 하다.

과학과 기술의 변화는 혜택을 예측하고 그 예측을 실현하기도 하지만 예견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동 시대에 대한 기준을 지역적 장소나 시대적 시간의 기준이 아니라 공유하는 문제에 둔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M. Csikszentmihaly(1990)의 예견과 같이 인간 의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주 속에서 지배적이기 보다는 협조적인 역할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유량적 삶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러한 ecology¹⁾

적인 사고의 시대에 무용 연구는,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여러 종류의 무용이 각각의 개별성을 잃지 않으면서 주변 즉, 인간을 포함한 사회 및 환경과 재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식이 생산되는 우주를 작은 영토로 구분하듯, 분열된 지식 생산 구조를 강화하는 경향은 19세기까지 물려받은 전통적 지식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는 문학을 국적에 따라 그리고 예술을 매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또,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보를 기반으로 지식이 형성되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에 “정보는 두 갈래의 길을 통해 우리의 식 속으로 들어온다. 하나는 선택적인 주의를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명령에 순종하는 습관화된 주의를 통해서이다”(Menand, L., 김혜원 역, 2013:71). 지식 정보 시대의 무용 연구는 무용이 존재하는 방식에 따른 실증적 탐구와, 적용되는 방식에 따른 텍스트 해석적 탐구 그리고 무용의 의미에 관심을 갖는 측정과 해석의 결합을 수반하는 탐구분야로 분류 할 수 있다.

에콜로지의 시대에 무용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다는 ‘무엇’과 ‘왜’이다. 따라서 무용 연구는 이 시대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모습(존재)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용이 어떤 목적(이유)으로 삶 속에 자리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용 연구의 목표는 전통적 지식 속에 비추어진 무용의 소인素因이나 사회, 문화적 규칙이 제시하는 획일적인 무용의 목적을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의 무용 혹은 어느 특정 무용을 해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무용 연구는 시대적 문제를 공유하는 동시대의 과제를 인식하고 각 개인이 삶에서 무용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간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시대적 과제로 보고 각 개인들의 삶의 형태에서 무용의 위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식이 ‘링크들로 연결된 망’인 인터넷 시대의 무용은 전통적 지식 속에 비추어진 무용과는 다르게 관계망 속에서 여러 형태로 형성된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의 유동적이고 유기적인 무용을 커뮤니티 댄스라 부른다. 그리고 참여무용에서 복합성이란 참여 체계의 장점과 잠재력의 개발 정도 그리고 체계적 장점들의 상호 연계성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참여무용의 복합성 연구”는 첫째, 커뮤니티댄스의 시대적 개념 탐색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동시대의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무용의 직접 경험의 기능과 아마추어의 역할을 제시하고, 둘째, 참여 무용의 복합성 제시를 위하여 참여의 체계와 무용의 잠재적 기능을 분류하여 탐색하였다. 본 연

1) 생태학ecology은 생물 상호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학문을 말한다 (Giddens, A., 한상진, 박찬욱 역, 2006:287).

구의 선행연구로는 “참여 무용의 제도화를 위한 교육전략 연구”(2012:41-57)가 있다.

II . 커뮤니티 댄스의 시대적 개념

동물 행동학자 E. Dissanayke는 예술작품을 창조하고 감상하려는 인간적 욕구의 진화에 대한 의견을 「예술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모든 형태의 예술은 특정 사물이나 활동을 형상화하고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특별하게 만들고자하는 명백한 인간적 욕구에서 유래했다
(Fisher, H., 최소영 역, 2008: 314).

현전하는 모든 것이 과거의 총화라면 무용도 역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현대적 인류를 만든 것은 3만 6천년전 이후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커다란 석기를 만들던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상아와 뼈, 뿔로 용구를 만들고, 동굴 벽화를 그리고, 습기차고 고요한 지하세계에서 의식을 거행했던 크로마농인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였다. 이렇게 시작된 인류는 지금도 지역을 불문하고 예술이라는 형식에 갖가지 개념과 자료들을 저장하고 있다.

예술을 포함하여 이렇듯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문화를 영위하는 인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 상징적 사고란 구체적인 세계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임의로 부여하는 능력이었다. 따라서 상징적 사고는 인간이 지닌 잠재력으로 시대나 상황에 따라 그 발현이나 개발 정도의 차이가 있는 문화적 뒀2)중 하나이다.

기우제를 지내며 춤을 추는 인디언을 사회학적으로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를 통해 진짜로 비가 내릴 것인가가 아니다. 비록 비를 부르지는 못 하지만 그들이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춤은 자신들 집단의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Beck U., 홍찬숙 역, 2013:13).

‘연결망적 지식’에서 무용의 형태는 물론, 그 의미도 다양하게 해석된다. 결국, 무용은 제1근대성이라고 하는 분명함의 논리에서 해석되던 시대를 지나 불확실성의 관계라고

2) 유전자처럼 개체의 기억에 저장되거나 다른 개체의 기억으로 복제될 수 있는 문화의 전달 단위

하는 다의성의 논리에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무용은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와 기능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형태의 다양함 만큼 연결 방식도 다양해진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터넷 시대age of net’의 무용인 커뮤니티 댄스는 인류의 문제를 공유하는 동시대 삶에 존재하는 무용으로, 지역적으로 각기 다른 방식과 여러 모습으로 그리고 각각의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삶 속에 존재하는 무용을 의미한다.

1. 직접 경험으로서의 무용

현대 인류가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데 영향을 준 에콜로지의 기본적 사고 체계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인류의 일부라는 견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양의 사고 체계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 방식과 해석이 사회를 모든 개인을 합친 것 보다 더 큰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동양의 사고 체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거대한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본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그 지속 기간 만큼 서로 다른 도덕적, 정서적 집합 경험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지식 세계에서 ‘삶의 문화적 조건이 메타 변동’³⁾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 시대의 집단적 규정이 개인의 선택권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생활 방식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시대에는 개인의 선택권이 넓어진 반면, 사회 체계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모순까지도 자신의 삶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중한 과제도 함께 맡게 된다. 이러한 시대에는 개인들의 프로젝트⁴⁾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즉,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개념 정의를 쇄신하며 자신이 한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원칙들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과거였다면 성찰할 문제에 대해 지금의 시대에는 반사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지식과 삶의 기회 등 모든 면에서 불확실한 불확정성의 세계에 있기 때문이며, 즉흥성의 문화가 반사를 강요하고, 모든 것을 급박하고 절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사물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식은 주관적으로

3) Beck U(2008)의 용어. 홍찬숙(역, 2013: 167)

4) Sartre, M. Ponty 같은 철학자들은 현대인의 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프로젝트라 명명했는데 이것은 각 개인의 인생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M., 최인수 역, 2004: 418).

경험한 현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험은 의식이 질서를 찾아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확신하게 해준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은 의식의 구성 요인들인 동시에 우리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결국, 의식은 의도적으로 순서화된 정보(intentionally ordered information)⁵⁾로 감각 기술이나 상징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해지는 마음의 통제 기능이다.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 주는 노래를 부르는 것, 우리의 기분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 우리의 느낌을 대변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좋아하는 농담을 하는 것, 기분 전환을 위해 불링을 하는 것 등이 이런 의미에서의 표현 형태들이 된다. 이러한 표현적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느낌을 갖는다 (Csikszentmihalyi M., 최인수 역, 2004:342).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목적 지향적인 의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외부의 것들에 의해 조종되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주관(직접)적인 경험들을 구체화하는 표현적 기술 개발은 시대가 우리에게 준 과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술 행위로서의 무용은 감각 기술과 상징 기술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목적에서의 무용 경험은 자기 만족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보다 진보적으로 기여하려는 자신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이다.

2. 아마추어의 의미

상징 기술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결코 자유로워 질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에서 내적인 동기에서의 경험(공부가)이 필요한 이유이다. 내적인 동기에 의해 습득한 지식은 실제적 결과물에 대한 성취 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인다. 그리고 자기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여야만 그 질을 높이기 위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의 내적(직접)경험이 육체적, 정신적 자원을 사용하여 감각 기술, 상징 기술을 개발하는 반면, 운동 경기를 관람하고, 레코드판을 듣고, 고가의 그림을 감상하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배우들의 연기를 지켜보는 등의 대리 참여는 일시적으로 공허함을 달래줄 수 있을 뿐이다.

5) Csikszentmihalyi M.의 용어 (최인수 역, 2004: 65).

과학기술은 신체를 침범해 들어왔으며,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단지 자연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다시 설정해주고 있다(Giddens A., 한상진, 박찬욱 역, 2006:110).

현재를 사는 우리는 D. Weinberger(2011:306-7, 273-4)가 요약한 인터넷의 속성을 인식하고 생활한다. 즉, 하이퍼 링크로 연결된 많은 생각들 사이를 클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의 시대, 허락을 받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읽고, 자기 생각을 덧 붙여 올리고, 또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로 '지금 말한 진실'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더욱이 공개적 장소인 인터넷에서는 누구에게나 내용이 공개되므로 우리는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언제나 담론화 할 수 있다.

개인들은 아마추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읽기 위해서 담론의 장에 참여하고, 대응하며 또, 반응하고 때때로 교정하고, 스스로 맥락화하며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지원을 요청하거나, 혹은 각각 다른 정보를 보여 주는 데이터를 조율한다.

커뮤니티 댄스에서 아마추어는 각 개인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주는 지식 정보들의 연결망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서 익숙하고 친밀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이다. 아마추어는 무용을 전문으로 공부하려는 사람들 만의 것이라는 전통적 지식의 경계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마추어들은 삶의 목적적 다양성에 따라 지식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자들이다. 자신의 내적 경험을 위해 무용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아마추어들은 달라진 지식 환경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무용을 경험하며 이전 시대의 분리된 지식 세계의 벽을 넘는 용기를 가지고, 지적 탐험을 결심한 창의적 개인들이다. 아마추어들이 늘어날 수록 무용의 각 영역에서 완전한 의견의 일치나 동의가 불가능해 지는 것은 정보나 데이터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무용 연구는 물론, 문제 해결들의 결과나 예술적 성취에 목적을 두는 전문가 영역의 무용이 부진한 것 같은 인식도 아마추어 무용이 다방면에서 제공하는 무용 정보와 영상 데이터들을 기초로 상대적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뮤니티 댄스에서 아마추어의 등장은 무용 결과물의 완성도나 내용의 진실성과는 별개의 기준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진실은 언제나 처럼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을 포함한 그 이외의 것이 포함된 문화가 낳은 산물이다. 결국, 모든 해석과 판단은 사회적이다. 해석은 항상 우리가 관심을 두는 문화, 언어, 역사, 인류의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담론 가운데 존재하는 무용 해석은 그것이 속한 맥락에서의 이해중 하나이다. 모두가 합의 한 지식이 아니라 언제나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실용적 진실의 시대의 다른 한편에는, 지식을 발견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데 몰두하는 인류 문화를 향상시키는 학문들이 있다.

커뮤니티 댄스의 아마추어들은 무용이 속되다고 판단하고 무시해 버린 것들 사이에서 가치와 보물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마추어의 지식이나 실력이 전문가의 수준과 같을 수는 없다.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동일하게 이해하는 행동은 어떤 측면에서는 해악이다.

아마추어amateur와 애호가dilettante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혼란은 무용에 참여하는 내적 목표와 외적 목표 사이의 구별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마추어의 목적은 무용을 통한 상징 훈련으로, 의식을 정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정신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아마추어 영역에서의 무용 지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 학식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아마추어가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되면 높아진 자만심 때문에 물질적 이득을 위해 무용 지식을 사용하는 모방가 즉,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 무용의 전문적 학식에 내재하는 지식의 발견에는 언제나 깊이 있는 탐구 과정에서 축적되는 회의론과 상호 비평에 대한 훈련이 동반된다. 그러나 아마추어의 학식 기반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활동에 조금씩 관여해서 각 분야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두 명칭이 ‘아마추어’와 ‘애호가’이다. 성취 보다는 경험에 비중을 두고, 무용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주관적 보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마추어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경험의 질을 성공, 성취, 성과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마추어가 자신의 동기가 되었던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면 아마추어의 지식은 전문가의 지식보다 쉽게 손상된다.

III. 참여 무용의 복합성

복합성이란 어떤 체계가 나뉠대로의 장점과 잠재 능력을 얼마나 잘 개발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의 상호 연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한 감각주의적 삶의 자세 즉,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간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자세가 무분별한 관념주의나 감각주의보다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Csikszentmihalyi M., 최인수 역, 2004:402).

고난도의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즐거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는 감각 기술과 상징의 기술을 계발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참여 무용이 표현적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이유는 직접 경험의 방법으로 각자의 주관적 경험들을 무용으로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수동적으로 무용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인 자기 지위를 과시하려는 외적인 이유에 주의를 기울이면 대중적 여가, 대중문화, 심지어는 고급 문화에서의 무용 참여 까지도 심리적 에너지만을 흡수할 뿐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그 어떤 힘도 기대할 수 없으며, 현대 대중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전 보다 자신이 더욱 지치고 용기를 잃어가는 것을 자각하게 해줄 뿐이다. 커뮤니티댄스에서 참여 무용은 결과물이나 성취 수준보다는 과정의 내적 경험이 목적인 직접 경험의 무용이다.

1. 참여 체계

개인이 자신들의 삶을 최대한 여러 측면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더 높은 도전을 추구하며,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제도에서는 기술적 진보나 물질적 풍요가 좋은 사회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해석과, 과학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에 기반한 객관성에 대한 이성적 분석에서 ‘보편성’보다는 ‘다양성’이 강조되고 ‘위대함’ 보다는 ‘차이’가 강조된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의 배경에는 1975년 이후의 다문화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과 지식의 인종적 함의에 대한 관심이 있다.

개인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문제의 개인들 말고는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Badiou A., 조형준 역, 2013: 546).

인류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 대한 인정이 그것의 유용함이나, 물리적 크기나 수와 무관한 것과 같이, 인격체에 대한 인정은 개인의 행동과 의식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다. 그리고 개별적 자의식의 전제가 타자이라는 것은 타자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자의식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시대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 ‘다양성’이라기 보다는 ‘다양성의 정상화’라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 생존을 위해서는 이전에 배제된 타자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또 다른 표현이다. 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온 개인들의 모순되는 세계관과 가치 체계가 한 공간에 공존하면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화 속에서 발

생되는 문제는 오히려 타자가 대안을 제공한다. 따라서 타자를 만날 수 있는 즉,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화 집단에의 참여가 공존의 방안이 된다.

개인들의 일반적인 문제인 “고통은 규범에 대한 이탈의 결과로 간주된다”(Eliade M., 심재중 역, 2003: 103).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고통은 개인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원인과 의미가 밝혀지고 나면 고통은 견딜수 있는 그 무엇이 된다. 그리고 원인과 의미의 규명은 언제나 체계 속에서만이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규범을 존중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은 구체적 보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주로 성취 그 자체에서 나온다”(Bègue L, 2011, 이세진 역, 2013:132). 그러나 규범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즉, 민족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인간과 시간 즉 인간과 문화 사이의 경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경계를 구성하는 일은 시대적 과업이 되었으며, 이것은 상상력을 동원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질감을 느끼는 집단의 도덕적 척도에 따라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집단에 더욱 강하게 결속되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완전히 다른 어떤 것 그리고 자신과 친밀감이 없는 것들을 접하고 교류하는데 기술적 편리성을 제공하는 인터넷은 집단적 지성이 자체적으로 만든 벽마저도 장애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타인과 이질적 집단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상상력으로 포용을 넘어선 배려로 상상기술은 현실을 넘어서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다.

자신과 다른 것과의 만남 그리고 동질적 집단과 친밀감이 없는 낯선 집단과의 교류에서 기술적 지원 체계로 기능하는 인터넷은 개인이 차이를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변명에 불과하게 만들었고, 차이를 포용하지 못하는 심리적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는 지적 과제로 제기하였다.

전 세계의 다른 문화의 예술 작품들을 즐기는 것은 이제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삶이 지역적인 것 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형태의 무용을 경험할 필요는 없다. 각기 다른 형태의 무용을 다른 방식을 통해 경험하는 것은 주변 세계나 각각의 지역 문화나 국가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이의 이해가 자국의 무용에 대한 인식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이다.

무용은 지역적 삶이 파생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개인들의 삶에 관여한다. 인터넷 시대의 ‘연결망 지식’은 다양한 기회와 모델을 항시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상상력(적용력) 만큼 무용 참여의 기회와 모델도 다양해진다. 그리고 무용을 통한 정신의 내적 여행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열려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곧 인터넷 시대의 무용 접근성으로 이런 환경에서라면 누구도 수동적인 무용 감상자나 소비자로만 머물러야 한다고 강요하지 못한다. 그리고 약간의 훈련과 그 훈련을 견디려는 의지만

있다면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무용으로 구성해 표현하는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다.

무용을 통해 계발된 표현적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전문’ 무용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개인의 무용 참여 경험을 비중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무용에의 참여 목적이 자신의 의식에 질서를 갖기 위한 내적이고 정신적인 신장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 속에는 이러한 용도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지식, 다시 말해 잘 정돈된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다. 누구나 위대한 음악, 건축, 미술, 시, 연극, 무용, 철학, 종교등을 통해서 혼돈 속에서 조화를 창조해 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해 버리고는 자신들만의 기제로 삶의 의미를 창조해 내고자한다.

혼자서 해보겠다는 것은 마치 각 세대마다 맨 처음부터 물질 문화의 구축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조상들이 축적해 놓은 삶에 대한 지식을 버린대거나 혼자서 실행 가능한 일련의 목표들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일은 잘못된 오만이다(Csikszentmihalyi M., 최인수 역, 2004:427).

개인이 살아가는 오늘은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시대이므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는 과정은 무용가가 독창적 작품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 창의성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움 없이 받아 들이게 해주지만 그러한 창의성은 표현적 기술이 필수적이다. 표현적 기술은 감각과 상징 기술로, 계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다. 결국, 참여 무용의 목적은 표현적 기술의 습득이며, 감각 기술과 상징 기술이 필수 요소인 표현 기술은 무용의 직접 경험을 통해 계발된다. 따라서 참여 무용은 직접 경험의 무용 모델이다. 그러므로 참여 무용에서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참여 무용은 물리적 결과물이나 성취도가 아니라 내적 경험과 그 과정에 목적을 둔 행위이기 때문이다.

능능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고 소능所能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다. 도道는 소능을 가리키고 학學은 능을 가리킨다(이광호 편역, 2013:187).

개인이 표현적 기술을 계발하고 무용을 직접 경험하는 참여 무용은 개인적 행위이며 이 행위는 집단의 크기나 규모- 소구 공동체, 사회, 민족, 국가 등 - 와 상관 없이 타자들의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행위이다. 그리고 참여 무용은 직접 경험의 의미

를 이해하고 그 질을 높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창의력을 신장시키므로 개인적, 집단적 창의력 개발과 관계가 있다.

창의성은 완전히 새롭고 예측불가능하고 비 결정론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질서와는 정 반대다. 눈의 구조는 평행한 광선들을 한 지점에 모으는 반면 창의성은 아이디어들을 사방으로 분산시킨다(Miller G., 김영주 역, 2004:519).

참여 무용으로 개발된 창의성이 개인의 개별적 삶과 타자의 삶들 즉, 그 개인들이 과거에 관계를 맺었던 그리고 지금 관계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중요성으로 관계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하고 낮은 집단들과 연결된 삶의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될는지 제시할 방법은 없다. 단지, 잠재력을 개발하여 정신적 기술을 훈련하여 얻게 되는 자신의 경험적 지식만큼 인간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믿음이자 이유일 것이다.

2. 참여 무용의 잠재적 기능

John M. Keynes(1930) 역시...우리는 언젠가는 수단(경제성장과 사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목적(행복과 복지)을, 유용한 것 보다는 선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경제 문제가 원래 자리인 부차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고 삶, 인간관계, 창조, 행위, 종교 같은 진짜문제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사람들을 경제에 몰두하게 한 ‘단순한 생존’의 필요나 권력 확장의 유혹들 보다 엄청나게 더 고상하고 매력적인 현실적 문제를 정말로 진지하게 대한다면 진정으로 건전한 생활양식과 공생양식에 이르는 길을 열어줄 문제들이 마음과 머리를 차지하거나 다시차지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Bauman, Z., 안규남 역, 2013:53).

무용이 마케팅 담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빈번해지면서 대중이라는 명칭과 무용과의 합성도 익숙해 지고 있다. 마케팅 지향 논리에서 무용은 대중의 필요와 기호를 만족시키는 것을 이윤을 얻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이윤은 물리적(작품)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중의 만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른 의미 부여이다. 인간의 심리 본능에서 출발하여 궁극에는 문화적으로 학습된 기호를 만들어 내게까지 된 대중의 기호는 결국, 내용을 무용으로 채운 상품 제작에 관여하게 된다.

빈곤한 상상력은 훌륭한 교육으로 가려지지 않고 부족한 감각은 멋진 예술품 수집으로 메꾸어지지 않는다. 문화적 차이와 기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논의의 시작일 수 있

지만 사안들을 끝내는 처방전이 될 수는 없다.

내적 경험에 목적을 둔 참여 무용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한 자아 인식의 과정이며 자신에 내재한 본능적 욕구나 사회적 욕망을 관리하는 정신적 힘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행위이다. 따라서 참여 무용을 통해 갖게되는 정신적 에너지는 자신이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확정하며, 대면하게 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며 삶을 자기 의지대로 실천해 가는데 필요한 창의성을 발현하게 한다.

우리는 진화가 빚어낸 설계상 외부인을 내부인과 동일시 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적을 미워하고 모르는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은 사람을 믿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같은 공동체 내에서는 대체로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낯선 사람을 대할 때에는 완전히 딴 동물로 변한다(Waal F., 2005:350).

타 집단에 대한 적대감은 도덕성을 출현시키는 단계까지 내 집단의 단결을 높였다. 결국, 공동체의식을 이끌어내는 힘은 타 집단과의 적대감이다. 역사 속에서도 사회는 타집단의 위협 앞에서 가장 단결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긍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이유는 소외를 두려워하는 기본적인 특징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집단이나 사회 혹은, 국가의 규범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만 남을 배려하는 감정이 때로는 반항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감정은 규칙을 압도하기 때문이며 보편적 인간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고민할 때 생각보다는 느낌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차이들로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상호 의존이 곧 조화이며, 공생의 의미는 개인간의 경쟁과 경합 및 투쟁의 장을 경험과 제도 그리고 공동체 삶의 문화적, 자연적 현실들을 촉진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행복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이다. 지구 생물체와의 공생은 인간이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친절한 협력, 상호관계, 공유, 상호 신뢰, 인정, 존중이 공생의 요건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심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상대방의 그것과 구별할 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상대방을 독립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선 배려는 개인적 감정이 자신의 행동이 타자(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상하는 것과 결합되어 도덕적 원칙을 만들어 낸다. 상향식 접근법으로 보면 감정에서 시작하여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에콜로지의 시대가 제시하는 행복이 공생에 있다면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보는

무용 경험은 배려심을 보상으로 받는다.

참여 무용의 요소인 감각 기술은 나와 다른 독립적 존재를 알아보는 인지 능력이며, 상징 기술은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 보는 상상력이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참여 무용의 표현적 기술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tolerance을 넘어 배려에 이르게 하는 높은 질의 내적 경험이다.

참여 무용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개념은 질 높은 내적 경험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전달할 수는 있어도 양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IV. 결론

몸과 정신 그리고 일과 여가 시간 모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의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이다. 어떤 면의 소비이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인간을 행복하고 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을 탐색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생산적 무용 경험에서 참여 무용을 제안하고 탐구하였다. 무용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감동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은 물리적 결과물과 성취 정도가 명료한 것에만 주의 집중한다면 무용 본래의 목적을 잃고 도구적인 것에 집착하게 된다. 커뮤니티 댄스에서 제안하는 참여 무용은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인류의 공동 이익을 생각하고 진보적 기여를 추구하는 완전한 인간 형성에 목적이 있다.

목표 지향적 행동을 시대적 과제로 보고 각 개인들의 삶의 형태에서 무용의 위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 ‘커뮤니티 댄스에서 참여 무용의 복합성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댄스는 인류의 문제를 공유하는 동시대 삶에 존재하는 무용으로 지역적으로 각기 다른 방식과 여러 모습으로 그리고 각각의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삶 속에 존재하는 유기적 무용이다.

인터넷 시대의 ‘연결망 지식’은 다양한 기회와 모델을 언제나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상상력(적용력) 만큼 무용 참여의 기회와 모델도 다양해질 수 있으며 무용을 통한 정신의 내적 경험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가능해 졌다. 이것이 커뮤니티 댄스의 접근성이다.

참여 무용에서 복합성이란 참여 체계의 장점과 무용의 잠재 기능인 감각 기술과 상상 기술의 계발 정도 그리고 체계적 장점들과의 상호 연계성을 말한다.

무용은 감각 기술과 상징 기술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목적에서의 직접 경험은 자기 만족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보다 진보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자기 완성을 위해서이다.

아마추어 무용은 성취 보다는 경험에 비중을 두고, 개인의 성취 수준 보다는 무용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주관적 보상을 강조한다.

커뮤니티댄스에서 참여 무용은 내적 경험이 목적인 직접 경험의 무용모델이다.

참여 무용에서 감각 기술은 나와 다른 독립적 존재를 알아보는 인지 능력이며, 상징 기술은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 보는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참여 무용이 추구하는 표현 기술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tolerance을 넘어 배려에 이르게 하는 높은 질의 내적 경험의 소산이다.

참고문헌

- 이광호(편역, 2013), **퇴계와 율곡 생각을 다룬다**, 홍익출판사.
- 한혜리(2012), “참여 무용의 제도화를 위한 교육전략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3집 1호**, 41-57.
- Badiou, A.(1988), *l'être et l'événement*, 조형준(역, 2013), **존재와 사건**, 새물결.
- Bauman, Z.(2013), *Dose the richness of the benefit us all?*, 안규남(역, 2013),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동녘.
- Bègue L.(2011), *Psychologie du bien et du mal*, 이세진(역, 2013),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부·키.
- Beck, U.(2008), *Der eigne Gott*, 홍찬숙(역, 2013), **자기만의 신**, 길.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최인수(역, 2004), **몰입**, 서울:한울림.
- Giddens, A.(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한상진, 박찬욱(역, 2006),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 Eliade M.(2001), *Le mithe de l'eternel retour*, 심재중(역, 2003), **영원 회귀의 신화**, 이학사.
- Fisher, H.(1992), *Anatomy of love, The natural history of monogamy adultery and divorce*, 최소영 (역,2008), **왜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싶어할까**, 21세기북스.
- Menand, L.(2010), *The marketplace of ideas: Reform and resistance in the american University*, 김혜 원 (역, 2013), **인문학 서바이벌**, 바이북스.
- Miller, G.(2000), *The mating mind*, 김영주(역, 2004), **연애**, 동녘사이언스.
- Weinberger, D.(2011), *Too big to know*, 이진원(역, 2014), **지식의 미래**, 리더스북.
- Waal, F.(2005), *Our iner Ape*, 이종호(역, 2005), **내안의 유인원**, 김영사.